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04호 【루계 제23056호】 주체99(2010)년 4월 14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67대련합부대의 종합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67대련합부대의 종합훈련을 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나붙어있는 훈련장에는 무적필승의 전투적기상이 나래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훈련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군인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훈련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군인들과 참관자들은 백전백승의 선군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전병호동지,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이 동행하였다.

평양시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여러 군부대들의 지휘관들이 훈련을 보았다.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과 군종, 병종사령관들을 비롯한 장령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전망대에 오르시여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훈련을 보시였다.

훈련시작구령이 내리자 각종 지상포들이 목표물에 대한 강력한 화력타격을 개시하였으며 줄지어 쏟아지는 불소나기로 하여 《적진》은 삽시에 산산조각나고 불바다로 화하였다.

훈련은 적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001㎜라도 감히 침범한다면 다지고 다져온 무적의 군력으로 침략자들을 일격에 쓸어버리고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할 멸적의 투지에 충만된 인민군군인들의 단호한 결심과 무자비한 타격력을 잘 보여주었다.

인민군군인들은 훈련을 통하여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참관자들은 천지를 진동하며 노호하는 폭음과 포성속에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가슴후련한 훈련을 보면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조선인민군을 천하무적의 강군, 강철의 정예대오로 키워주시였으며 자위적국방공업의 강유력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위대한 장군님 따라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전법을 빛나게 구현한 높은 수준의 훈련을 보시고 모든 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격파분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킬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육탄결사대,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들로 자라났을뿐아니라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고 하시면서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이 무적의 대군을 가지고있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불패의 보루로 영원히 솟아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이 당의 훈련방침을 높이 받들고 훈련을 맹렬히 벌려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무장으로 견결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훈련에 참가한 전체 군인들은 자기들의 훈련을 친히 보아주시고 전투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자애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영원히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며 조국보위성전에 한몸 다 바칠 결사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8돐에 즈음하여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해 일본돈으로 1억 8 402만 7 390￥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총련에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도합 156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65억 9 425만 390￥에 달한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과 대표들, 《국제김일성기금》 리사장, 중국 심양조선경제무역투자자문유한공사 동사장일행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꽃바구니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바구니를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이 13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하리쉬 굽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아나똘리 돌가체브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 선군정치연구협회대표단 단장, 바비츠 보그다나를 단장으로 하는 우크라이나자주련맹대표단, 린 씨노디움 프랑스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이 올리는 선물들이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각각 전달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죠니 혼 《국제김일성기금》 리사장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가 13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제12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중국 심양조선경제무역투자자문유한공사 동사장일행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류진생 동사장이 1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민주꽁고로동계시민협회에서 로동계최고상들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민주꽁고로동계시민협회에서 보내여온 로동계최고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민주꽁고로동계시민협회에서 보내여온 로동계최고상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민주꽁고로동계시민협회에서 로동계최고상들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로동계최고상들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헤켈레 안드레 민주꽁고로동계시민협회 위원장이 13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김일성주석은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태양절기념 인터네트도서 및 사진전시회 진행

태양절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의의깊게 맞이하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드높은 열기속에 《**김일성**주석은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라는 주제의 인터네트도서, 사진전시회가 3월 13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조선과의 친선협회준비위원회는 조선과의 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에 전시회특별페지 (기본페지와 부분페지들)를 설정하였다. 기본페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였으며 공화국기사진과 준비위원회의 기념글을 편집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2012년 4월에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조선과의 친선협회준비위원회는 이날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빛내이기 위한 국제적행사의 일환으로 2010년 태양절기념 인터네트도서, 사진전시회를 진행하게 된다.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탄생하신 1912년 4월 15일은 포악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의 압제속에 숨져가던 조선에 민족재생의 려명이 밝아온 대경사의 날이였으며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앞길에 광명한 미래를 기약한 력사의 날이였다.

주석각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주석각하께서 이룩하신 모든 업적과 그이의 고매한 풍모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참된 삶의 거울로 빛나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만민의 흠모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6 면 으 로 계 속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 수여식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이 모범적인 청년동맹원들과 일군들, 학생소년들에게 수여되였다.

수여식이 12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준비하였으며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인 154명의 청년동맹원들과 일군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이 수여되였다.

이어 《**김일성**소년영예상》이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근위대로 준비하였으며 학습과 조직생활, 좋은일하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192명의 학생소년들에게 수여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한평생 인민을 위해 걸으신 사랑의 길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하는 선군의 내 조국땅에 20세기가 낳은 걸출한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의 노래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김일성민족의 대행운, 휘황찬란한 미래와 잇닿은 환희로운 4월의 봄명절이 바야흐로 다가오는 이 시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준엄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혁명의 1세, 2세들만이 아닌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란 사람들모두가 뜨겁게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가 있다.

수령님은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

만민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경건히 우러르는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해솟는 바다처럼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얼마나 열렬한 매혹을 자아내는 걸출한 위인이신가.

인류력사는 인민을 위하였다는 위인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수없이 전해오고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의 모든 날과 날, 순간순간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위대한 헌신으로 이어가신 걸출한 위인, 인민의 어버이는 알지 못하고있다.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리념이 빛발치고있다.

이민위천!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결한 혁명생애가 찬연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인덕으로부터 뛰여난 인품과 소탈한 성품, 검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와 거룩한 영상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특출한 위인상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수령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천만리길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과 함께 폭풍도 시련도 맞받아뚫고 헤치시여 언제나 승리를 떨치신 영광의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권을 펼치면 누구나 심장에 먼저 새기는 글발이 있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혁명가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금옥같은 명언을 되새길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승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조선혁명의 자랑찬 년대기들이 세월의 언덕넘어 숭엄한 추억을 불러온다.

길림시절은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행렬차에 처음으로 오르신 잊지 못할 시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시절 인민이야말로 선생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대중의 혁명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였기에 《ㅌ. ㄷ》와 첫 당조직이 결성되고 그 길에서 항일무장대오가 탄생할수 있었다. 인민행렬차야말로 조선혁명을 새롭게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온 혁명의 기관차였다.

인민의 지지를 떠난 군대가 결코 강군으로 될수 없고 싸움에서 승자로 될수 없다는것을 진리로 확증한 항일혁명,

백두산밀영을 방문한 박인진도정에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달구어준다.

물론 나에게도 신처럼 숭상하는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이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왔고 인민을 하느님처럼 섬겨오고있다. 나의 하느님은 다름아닌 인민이다.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인민의 아들, 절세의 위인을 사령관으로 모시였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이 헌신적인 사랑과 지원이 파도치는 인민의 바다우에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올수 있은것 아니랴.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완수, 이 땅에 일떠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진정 이 모든 력사의 기적은 철두철미 이민위천을 숭고한 리념으로 간직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심으로써 이룩하신 자랑찬 결실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행렬차행로에는 참으로 감동없이는 들을수 없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수많이 수놓아져있다.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펄에 빠진 승용차를 몸소 미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가슴뜨거운 이야기, 몸소 질벅한 논판에 들어서시여 논갈이깊이까지 가늠해보신 이야기, 광부들이 일하는 막장까지 들어가지 않을바에야 무엇하러 광산에 왔겠느냐고 하시면서 석수가 떨어지고 바닥이 질벅한 좁은 갱안을 간데라불로 비쳐가시며 걸으시여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만나보신 이야기…

우리 혁명이 닻을 올린 때로부터 단 한번도 로선상착오나 자그마한 실수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할수 있은 비결은 이처럼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세우시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오신 빛나는 결과이다.

일군들을 만나실 때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고 간곡하게 이르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고 들어가지 않는것은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늘 강조하신 위대한 수령님,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셨으면 하는 일군의 청을 마다하시며 옛말에 《신로군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하가 일을 많이 하면 임금이 편안하다는 말인데 나는 인민의 신하이고 인민은 우리의 임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많이 하여야 인민들이 편안하게 지낼수 있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그렇듯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고도 자신을 인민의 아들로, 심부름군으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신 우리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몇백밤을 새워도 끝이 없을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이민위천의 리념은 오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안으시고 가시는 곳마다에 하늘도 머리숙이게 하는 감동깊은 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해 봄날의 화원마냥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인민들을 위하여 험한 길을 걸으시였지만 언제 한번 길이 나쁘다고 안 가신적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다 걸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의지대로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위험하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쉬임없이 찾아가고계신다.

나의 병사들이 기다린다고 하시며 풍랑사나운 파도우에 서슴없이 나서신 초도의 배길과 오성산의 칼벼랑길, 판문점, 1211고지, 351고지를 비롯한 끊임없는 최전연시찰의 길, 막장으로 이어진 검덕현지지도의 길,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정력적인 사색과 실천의 길…

눈물없이는 따를수 없는 위대한 헌신의 그 길에서 《쪽잠과 줴기밥》, 《야전리발》, 《야전솜옷》 등 혁명일화와 렬차집무실,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과 같은 격동적인 시대어들이 수없이 생겨나고있다.

하늘가에 터져오르는 축포의 불야성을 보시면서도 우리 인민들에게 천만가지로 꽃피는 행복을 안겨주고싶다고, 그것이 바로 축포에 비낀 자신의 리상이고 희망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어버이장군님,

오로지 그 하나의 소원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도 줄기차게 령도하고계신다.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과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꼭같으신 걸출한 백두령장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기어이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태양의 력사를 무궁토록 빛내여갈것이다.

본사기자 계 성 남

길이 빛날 위인의 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혁명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전설적영웅이시며 반제투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영원한 부강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걸출한 정치가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력사를 수놓아오신 참다운 인민의 수령, 자애로운 어버이,

참으로 동서고금의 력사에 위대한 수령님과 같이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며 당대에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위인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운명, 사회주의와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며 태양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사를 창조해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이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하게 꾸려지고 주체년호와 태양절이 제정되였으며 **김일성**헌법이 제정공포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나 다름없이 우리 인민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하여 더욱 빛나고 수령님의 령도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으로 수많은 로작들을 집필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시고 부강조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로선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장엄히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군대와 국가는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 수령님의 군대, 수령님의 국가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적시책들이 더욱 뜨겁게 인민들에게 안겨지고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기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를 그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을것인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의 뜻을 활짝 꽃피우실 결심과 의지를 지니시고 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이 깃든 곳이면 그 어디나 다 찾으시여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께서 이어가시는 선군장정의 길을 따라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현대화된 굴지의 공업기지들이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고있으며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을 위한 투쟁과 토지정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경공업혁명의 희한한 본보기들이 도처에 마련되였다. 그리고 이 땅의 도시와 마을, 거리들이 선군시대의 선경으로 일신되고 조국강산이 아름답게 변모되였다.

남들이 수십, 수백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한 거창한 창조와 변혁들로 세계를 놀래우며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뜨거운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력사의 기적이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을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불철주야의 전설적인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시며 강성대국건설을 진두에서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천만군민의 정신력은 활화산처럼 분출되고 이 땅에는 비약과 혁신의 거세찬 열풍이 휘몰아치게 되였으며 기적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것이다.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 CNC기술의 최첨단돌파, 마그네샤크링카공업의 주체화실현,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사변인 비날론대경사, 온 나라에 비약의 폭풍을 안아일으킨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의 창조 …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이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인민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뜻과 념원인 사회주의강성대국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리상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계시여 수령님은 천세만세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것이며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빛나게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혁명력사, 태양의 력사는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흐를것이다.

본사기자 리 수 근

다함없는 신뢰, 영원한 일편단심

뜻깊은 태양절을 앞둔 이 시각 또 하나의 격동적인 기념일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받으신 18돐!

주체81 (1992) 년 4월 13일,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터쳐올린 영광과 행복의 환호성이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쟁쟁히 메아리쳐온다.

김일성대원수님 만세!…

천지를 진감한 만세소리, 그것은 우리 조국의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 위대한 영웅을 우러러 터치는 한없는 고마움의 웨침, 위대한 수령님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걸어나갈 신념과 의지의 메아리였다.

대원수칭호, 여기에는 백전백승의 성스러운 력사를 광휘롭게 수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 뜨거운 충정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으로서의 천품을 타고난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전의 나날들이 못 잊을 추억속에 파도쳐온다.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는 참으로 간고하고 엄혹한 장정이였다. 그 류례없는 혈전의 길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그 어떤 후방보급기지도 없이 식량과 피복, 무기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군과의 격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해일속》이라고 하며 《무적황군》의 위세를 뽐냈지만 매번 패전만을 거듭하였으며 **김일성**장군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시나무떨듯 벌벌 떨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략은 실로 천변만화하고 백전백승하는 지략이였다.

단숨에 백리, 천리를 달려 적들을 혼란시키기도 하고 멀리 이동하는척 하다가 적들의 코밑에 슬쩍 돌아앉기도 하며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가 하면 동쪽과 서쪽을 동시에 치는 전법, 적들의 한가운데 끼여들어 한바탕 휘저어놓고는 슬쩍 빠져나와 제놈들끼리 맞불질을 하게 하고 적이 집중하면 분산하여 치고 적이 분산하면 집중하여 치는 도저히 가늠할수 없게 하는 신출귀몰의 전술과 전법을 두고 일제는 귀신도 통곡할노릇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적들은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시체만을 남기면서도 어리석게 조선인민혁명군을 전멸시켜보겠다고 이리떼마냥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승리한것은 탁월한 령장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혁명군이였고 패배한것은 살륙, 파괴, 《토벌》에 악착하게 매달리던 강도 일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도 인간인데 어떻게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모진 강추위와 굶주림속에서 나무잎을 깔고 눈우에서 자면서도 기나긴 세월 피의 항전을 계속할수 있었는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모든것을 우리는 전설, 기적이라는 말로밖에는 다르게 설명할수 없다. 일제는 패망하는 날까지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전설적위인,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대전을 진두지휘하시고 수령님의 존함을 민족의 슬기와 정신, 힘과 용맹의 상징으로 여기고 따른 조선인민의 힘을 당할수 없다는것을 일제는 알수 없었다. 여기에 일제의 비극이 있었고 패배의 근원이 있었다. 어둡던 강산에 해방의 새봄이 꽃펴나던 력사의 그 시각 우리 인민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우리 수령님을 모신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그이를 전설적영웅으로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조선의 군사적기적은 1950년대로 또다시 이어졌다. 3년간의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위대한 령도는 침략의 괴수 미제와 추종국가군대를 무릎꿇게 한 조선의 백승의 원천이였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굴할줄 모르는 신념과 락관을 안겨준 필승의 보검이였다.

기성의 군사리론이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백두광야를 주름잡으시며 구현하신 주체적인 전술과 기묘한 전법으로 전쟁 첫 시기부터 미제의 면상을 보기 좋게 후려갈기신 위대한 수령님,

맞다드는 적들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안기시는 우리 수령님의 탁월한 작전적구상, 령활한 군사전법에 의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이룩된 군사적기적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극동의 열점인 조선에 눈길을 모으고있던 세계군사가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미지상군 첫 선견대의 완전한 전멸, 《바다의 움직이는 섬》이라고 자랑하는 미해군의 중순양함격침, 《하늘의 요새》라고 뽐내던 《B-29》전략폭격기 격추…

새로운 반공격전과 진지방어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정규적인 전법에 유격전술을 배합한 독창적이고 기묘한 전법은 또 얼마나 미제의 숨통을 드세게 조였던가.

승리는 더 큰 기적적승리에로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수호전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온 세상에 자랑높이 떨쳐주시였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세계의 초점이 조선으로 쏠리던 군사적긴장상태때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여유작작하게 그 모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며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으니 우리 수령님같으신 위인이 과연 그 어느 시대에 있었던가. 진정 그이이시야말로 신화적인 기적으로 한생을 수놓으신 전설적위인, 불세출의 영웅이시다. 바로 그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의 의지와 시대의 요구, 만민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을 담아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대원수칭호를 삼가 드렸던것이다.

명장이라고 하면 군사적기질과 인간적풍모의 견지에서 볼 때 비범한 예지와 지략, 강의한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열화같은 인덕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력사에 흔적을 남긴 명장들은 대체로 지략이 있으면 결단성이 부족하였고 위엄은 뽐내지만 의지가 약하였으며 더우기 그들의 인덕에 대해서는 거의나 전해지는것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은 명장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천출명장, 천하제일명장이시다.

불세출의 전설적영웅 어버이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신념의 산악이 되고 창조와 투쟁의 불길이 되여 대혁신, 대비약에로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그 존함,

우리 인민은 한없이 친근하고 성스러운 그 존함을 부르며 오늘의 락원을 건설한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남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실 신념과 의지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고

철산군당위원회 사업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것을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로 여기고 있다. 우리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철산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취재하는 과정에 그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였다.

철산군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한평생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군자체의 힘으로 완강하게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불과 한해 남짓한 기간에 식료공장, 화학공장을 비롯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가고있는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활짝 꽃피우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 길에 참된 삶의 보람이 있다는 신념이 굳게 자리잡고있다.

최근시기 군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군당위원회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직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킨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숭고한 도덕관을 가지고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관계부문 일군들의 모임이 열린 날이였다.

모임에서는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그런데 조건이 어렵다는데로부터 일을 늦잡으려고 하는 일부 일군들도 있었다. 모임에 참가한 군당책임비서 신태욱동무는 일부 일군들이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는 단순히 기술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는 숭고한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이다.)

군당책임일군은 자기의 이런 심정을 담아 모임에 참가한 모든 일군들에게 호소하였다.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해 우리가 꼭 해내야 할 목표이다. 이 사업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높이 발휘해가는 과정으로 승화시켜 진행하자.

군당책임일군의 호소는 모임참가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날의 모임은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에 분연히 일떠서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렇게 되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현대화공사가 벌어지게 되였다.

현대화사업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럴수록 군당위원회는 군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난관을 뚫고나갔다. 군당위원회는 매 대상들의 단계별 현대화추진목표를 명확히 제기하고 조직정치사업을 벌려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분발시키였고 총화평가사업도 일군들이 사상적각오를 높이도록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의 부장이상 일군들이 중요한 일감을 한가지씩 맡아나섰고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는 집체적협의의 방법으로 풀어나갔다.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갔다.

군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인 한상권동무는 군안의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라는 자각을 안고 군인민위원회의 일군들과 함께 세멘트와 철근을 비롯한 중요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자신이 스스로 걸머지고 정열과 지혜를 쏟아부었다.

중요자재들이 해결되면서 건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이 쑥 앞서나가게 되였다. 공사속도가 높아지자 로력과 골재가 모자라게 되였다.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공사장의 형편을 군안의 주민들에게 알려주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을 내용으로 한 군기동예술선동대와 읍지구 녀맹원들의 예술선동활동이 줄기차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공사장에 충정의 세계가 펼쳐지고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되였다.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물론 부양가족들까지 스스로 모래채취에 떨쳐나서고 공사장의 지대정리작업을 해제끼면서 건설자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성의껏 진행하였다. 이렇게 되여 군에서는 식료공장, 화학공장의 현대화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질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공사를 빨리 마무리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

이곳 군당위원회의 사업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는것을 혁명전사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로 여기고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불러일으킬 때 얼마나 큰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가를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유훈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현지지도단위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지지도단위를 잘 꾸리고 빛내여나가는것은 당과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태양절을 앞두고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조선을 강성대국으로 빛내이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위한 최대의 민족사적위업이며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인민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이 사업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단위의 당조직들이 앞장에 서고있다.

현지지도단위 당조직들에서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당조직들에서처럼 어버이수령님께서 념원하시였던 문제들을 한몸바쳐 실현하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현지지도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앞장서나가도록 대중을 옳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단위에 깃든 혁명사적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속에 널리 소개선전하고 현지지도에서 제시된 과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철강재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높여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개선을 가져오고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을 비롯한 석탄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대중속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석탄생산에서 날마다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철도운수부문의 현지지도단위 당조직들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려객수송과 화물수송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데로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대중을 기술혁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생산에서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질좋은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강서구역 청산, 평원군 원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농사일을 철두철미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여 올해의 농업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키도록 농장원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이기 위한 현지지도단위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수령님의 유훈 관철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최시홍

경쟁속에 뜨거워지는 정

초산직물공장 당조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은 광범한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얼마전 자강도에 대한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일잘하기로 소문난 초산직물공장에도 들렸다.

이 땅 어디에나 그러하듯이 초산직물공장에도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후더운 마음안고 공장을 돌아보는 우리의 눈길은 문득 벽면에 붙인 사회주의경쟁도표판에서 멎었다.

이악하고 승벽심이 센 이 공장 직포공들의 뜨거운 열의가 그대로 엿보이는 경쟁도표였다.

《경쟁도표판을 보니 승부가 좀처럼 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도표를 바라보며 물어보는 우리에게 공장일군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지난 2월 사회주의경쟁때였다.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던 직포 1작업반과 2작업반사이의 생산실적이 차이나기 시작하였다.

2작업반이 1작업반보다 조금 뒤떨어졌던것이다.

원인은 직포명수인 2작업반의 리동무가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데 있었다.

그날 저녁 2작업반의 직포공들과 함께 당세포비서 김룡동무는 그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이미 하루일을 마친 1작업반의 직포공들이 병치료에 좋은 보약들과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와있었다.

동지들의 사심없는 지성과 고무속에 병이 완쾌된 리동무는 다시 기대를 잡았다. 2작업반 실적은 또다시 뛰여오르기 시작하였다. …

《치렬한 경쟁속에서도 이렇듯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동지애는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승부가 잘 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공장일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그에 대한 리해를 더 깊이하고싶어 우리는 잽싸게 손을 놀리며 기대를 돌려가는 1작업반의 나어린 직포공처녀에게 다가갔다.

《꼭 승부가 나야지만 경쟁입니까. 모두가 다같이 1등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직포공처녀의 이 말이 우리의 심금을 쿵 울려주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서 모두가 혁신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여야 한다는 집단주의정신, 이런 불같은 마음들에 떠받들려 공장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모범공장으로, 전투력있는 단위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이 아니랴.

본사기자 황철웅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벌고 험한 길을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청단군 화산리당위원회에서

청단군 화산리당위원회에서는 태양절을 맞으며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 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리당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갈때마다 당세포비서들과 학습강사,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긴밀하게 짜고들어 그들이 정황에 맞게 선전선동활동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리안의 선동원들은 계기와 공정을 옳게 리용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덕성의 위대성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깊이 새겨주어 그들이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안고 당면한 농사일을 다그쳐나가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에 내려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포전길을 걸으시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리당위원회가 선동원들을 적극 내세워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 교양을 집중적으로 벌린 결과 농장에서는 씨뿌리기전투와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로농통신원 리명철

수필 최대의 경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이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뜻깊은 4월과 더불어 더욱 뜨겁게 흐르는 전인민적감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력사에는 충의와 충절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다면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우리 인민의 최대의 경의는 어떤것인가.

내가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가지게 된것은 얼마전 한 일군을 만나고서였다.

그를 만난것은 평양지하철도 통일역사옆 꽃매대에서였다.

《천내리세멘트공장 지배인동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만난 나에게 그는 대답대신 꽃다발을 내보였다.

의미있게 웃는 그의 모습이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공장에서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한 생산공정의 콤퓨터화를 목표로 내세웠었다. 우리가 취재갔을 때에는 아직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웠으나 그는 확신성있게 말했었다.

천내리로동계급을 굳게 믿는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 기어이 성공의 보고를 드릴것이라고…

지배인과 일행은 만수대언덕으로 오르고있었다.

성공의 보고를 안고 만수대언덕을 오르는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 불현듯 잊지 못할 화폭이 떠올랐다.

16년만에 주체의 비날론이 다시 태여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비날론솜을 야전차에 실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이 솜을 금수산기념궁전에 가지고 가서 어버이수령님께 보여드리자고, 그러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뜨거움에 옷깃을 적시였었다.

먼길의 피로도 잊고 우리 장군님 평양으로, 주체의 최고성지로 차를 달리시던 그날 일군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시려 우리 장군님께서 불같이 이어가신 현지지도강행군길에 새겨진 숭고한 도덕의리의 전설이 천이였던가 만이였던가.

세상이 놀라고 우리 인민도 놀라게 한 크나큰 변을 안아오시고 우리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라고 정중히 보고드리신 지난해 10월 경축의 밤이며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앞에서 삼가 경례를 드리신 잊지 못할 봄날의 전선길, 수령님생전에 그토록 념원하시던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할수 있는 불씨를 안고있는 창조물을 보여주는 직관물앞에 경건히 경례를 드리신 대흥청년영웅광산에 펼쳐졌던 숭고한 화폭 …

무엇을 하나 구상하시여도, 공장을 하나 찾으시여도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실 맹세로 가슴 불태우시는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숭엄히 가득차있는 숭고한 도덕의리, 진정 그것은 수령님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시는것으로 수령님의 영생을 축원하시려는 충정이였다.

그렇다.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는 수령님의 념원을 기어이 이 땅에 현실로 꽃피우는것!

그래서 꽃피는 이 봄날 성공의 기쁨을 안고 만수대언덕을 오르는 천내리의 로동계급, 아니 그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모습이 그리도 숭고하고 고결한것이 아니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나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어버이수령님 념원하시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그 빛나는 실현이야말로 수령님께 드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경의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림현숙

황해제철소혁명사적관창립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황해제철소혁명사적관창립 30돐 기념보고회가 12일에 진행되였다.

최룡해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사적관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황해제철소혁명사적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올해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창립 30돐을 맞는 황해제철소혁명사적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혁명사적관이 주체69(1980)년 4월 13일에 창립된 후 지난 30년동안 당과 수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사적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황철을 현지지도하시며 야금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혁명사적자료들을 전면적으로 발굴정리하고 진렬전시함으로써 사적관을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꾸리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사적관에서 최근년간 황철에 깃들어있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할수 있도록 혁명사적비를 훌륭히 개건하였으며 혁명사적물영구보존함들에 현대적인 수단들을 도입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적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은 참관자들에 대한 해설강의를 실속있게 하는 한편 이동강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황철로동계급이 당과 수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대고조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황해제철소혁명사적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전통의 견결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리경선의 보고에 이어 관장 허옥희, 실장 리동호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혁명사적관창립 30돐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적관사업에서 일대전환을 일으켜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깃든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사적내용들의 진렬형식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며 강의를 보다 심도있게 하여 참관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 잘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에 대한 위대성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745호 주체99(2010)년 4월 2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3대혁명붉은기

김정숙평양제사공장 1직장
만경대혁명사적관
평양대성보석가공공장
만경대피복공장 재봉2작업반
대동강은하피복공장 2작업반
숙천군 약전농장 제10작업반
안악군 원룡협동농장 청년2작업반
승호고려약공장
평양철도대학 철도운영학부
락랑봉화피복공장 3작업반

3대혁명붉은기

담배련합기업소 려과봉직장
하당닭공장 1직장
경림영예군인인쇄공장
대동강구역체신소
룡성구역인민병원
평양시제1인민병원 신경내과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화학직장
남덕탄광 6갱
령대탄광 5갱 채탄1중대
명학탄광 3갱 채탄3중대
순천제약공장 주사약직장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통신소
증산군 이압협동농장 제4작업반
증산군 광제협동농장 제1작업반
와우도구역 대대협동농장 남새5작업반
박천군 신평협동농장 제9작업반
운전군 보석협동농장 제4작업반
운전군 대오협동농장 제1작업반
곽산군 관상협동농장 제9작업반
철산군 원세평협동농장 제4작업반
철산군 읍협동농장 제5작업반
염주군 인광협동농장 제1작업반
염주군 도봉협동농장 제4작업반
은천군 제도협동농장 제9작업반
은천군 마두협동농장 제2작업반
은률군 장련협동농장 제6작업반
태탄군 공세협동농장 제9작업반
송화군 다암협동농장 제2작업반
청단군 양화협동농장 제4작업반
배천군 추정협동농장 청년분조
사리원시 대성협동농장 청년작업반
승호군 화천공예전문협동농장 청년작업반
황주군 철도협동농장 제2작업반
연탄군 신흥농장 제4작업반
연탄군 풍답농장 기계화작업반
강계신발공장 재단종합작업반
장강군 장평협동농장
동신군 서양협동농장 제3작업반
문천시 석전협동농장 제1작업반
안변군 비산협동농장 제2작업반
창도군 대백협동농장 제4작업반
김화군 룡현협동농장 제3작업반
세포군 귀락축산전문협동농장 제2작업반
상화청년탄광 청년갱
룡북청년탄광 덕촌갱 기본굴진중대
경흥군 안길협동농장 제2작업반
라선시 유현농장 제1작업반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가소제직장
홍남대흥수산기업소(모체)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중기계직장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 건축1직장
고원군 상평협동농장 제2작업반
고원군 다천협동농장 제3작업반
금야군 지인협동농장 제3작업반
정평군 창신협동농장 제3작업반
함주군 항수협동농장 제2작업반
함주군 흥서협동농장 농산 제1작업반
홍원군 호남협동농장 제4작업반
홍원군 학송협동농장 제1작업반
북청군 지만협동농장 제3작업반
단천시 석우협동농장 제4작업반
단천시 룡연협동농장 제1작업반
풍서군 관흥협동농장 제3작업반
평양건재공장 수지창직장
신련포역
청단역
신의주전기대 통신소대
대동강맥주공장 소비품직장
대성백화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747호 주체99(2010)년 4월 2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영예의 붉은기,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 이바지한 학교들에 3중영예의 붉은기,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영예의 붉은기

향산군 향산소학교

2중영예의 붉은기

평양간성중학교
전천군 장자강소학교

영예의 붉은기

평양광명중학교
평양룡흥중학교
향산군 상서중학교
상원군 대천중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8돐기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이 13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직맹일군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최수동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2.8비날론련합기업소 직맹위원장 류광혁, 동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로동자 정종혁, 애국편직물공장 초급직맹위원장 박성월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맞이한 민족대통운의 날이며 우리 조국과 인류자주위업의 밝은 전도가 열린 력사의 날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장구한 기간 혁명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과 인민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직업동맹건설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동맹이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시고 부강조국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준비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뭉개버리고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모든것을 지향시키며 원군미풍을 발휘하여 군민대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급 직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모든 동맹원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 위훈자로서의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장군님 모시여 태양의 노래는 영원합니다》

녀맹원들의 태양절기념무대

녀맹원들의 태양절기념무대 《위대한 장군님 모시여 태양의 노래는 영원합니다》가 13일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차넘치는 가운데 무대에 나선 로성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모든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위대한 혁명가, 자애로운 어버이의 성스러운 생애였다고 말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에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고 우리 녀성들에게 값높은 삶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온 나라 녀성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무대에 올린 시와 노래 《태양절을 노래하세》, 불후의 고전적명작 《충성의 노래》, 합창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나라》 등은 민족대통운의 날이 있어 주체혁명의 새시대가 열리고 김일성민족의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음을 잘 보여주었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마른날, 궂은날 가림없이 험한 농장길을 걸고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를 눈물겹게 되새겨보게 하는 만경대남새전문농장 관리위원장 김영복의 이야기와 노래 《포전길 걸을 때면》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평양방직공장 직포공들인 전옥화, 문강순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현지지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헌신과 령도의 위대성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전하였다.

중창과 합창 《당은 장군님의 품》, 가야금병창 《선군승리 열두달》, 장고와 합창 《온 나라의 대경사로세》, 합창 《강성대국이 보인다》 등은 참가자들에게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이 현실로 꽃펴나온 나라에 천만가지 복이 차고넘칠 태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대고조진군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갈 전체 녀성들의 의지를 반영한 녀맹일군들의 결의는 참가자들을 격동시켰다.

녀맹원들의 태양절기념무대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기개를 떨쳐갈 우리 녀성들의 신념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혁명전통주제의 중앙미술전시회 개막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98돐에 즈음한 혁명전통주제의 중앙미술전시회가 13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령도풍모를 보여주는 조선화, 유화, 아크릴화, 출판화를 비롯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다.

관계부문 일군들, 미술창작가들, 시내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안동춘문화상의 개막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미술작품들을 돌아보았다.

유화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아크릴화 《〈ㅌ.ㄷ〉결성의 나날에》, 출판화 《첫 무장대오의 앞장에 서시여》는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총대로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이 땅우에 민족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이 차넘치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풍모를 보여주는 유화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베개봉숙영지 우등불가에서 대원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화 《대홍단전투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유화 《지성어린 원호물자를 가지고 온 인민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출판화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 등의 작품들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그들은 유화 《전적지의 봄》, 아크릴화 《크나큰 은정》을 비롯한 작품들을 보면서 선군의 기치높이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된 조선화 《무기탈취》, 《조선민족의 단결로 일제를 쓸어버리자》, 《사령부의 불빛》, 《반일전쟁승리 만세!》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김책동지와 안길동지를 비롯한 혁명투사들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은 참가자들이 선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락관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게 하였다.

이날 태양절기념 송화미술전람회도 개막되였다.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 제12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이 13일 제12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떠받들려 아름답게 피여난 김일성화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후쌈 무쉬르 에짚트아랍공화국대사관 문화참사는 감상록에 축전장을 참관하면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생애를 되새겨보았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욱 번영하기를 축원한다고 썼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예술인들, 기동예술선동대원들, 예술소조원들이 13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방문한 축전참가자들은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조국땅에 자주와 번영의 일대 개화기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주체적문화예술의 전통을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은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예술소조원들의 소박한 공연도 보아주시며 우리의 문화예술이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수령칭송의 노래 힘차게 부르며 혁명적인 예술창조활동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기여해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도이췰란드련립 집권당출신 련방의회 의원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3일 도이췰란드그리스도교사회동맹출신 련방의회 의원인 페터 가우와일러 련방의회 외교위원회 대외문화 및 교육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이췰란드련립집권당출신 련방의회 의원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해외동포예술단들 만경대 방문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최수봉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예술단, 안용구 재미동포전국련합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조선인예술단, 김미숙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이 13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해외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재중조선인예술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을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시였다.

그이는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우리는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조국인민들과 함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위업에 모든것을 바쳐갈것이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최봉길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중국관광부문방문단 도착

중국관광부문방문단이 12일에 이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과 평양역에는 《중국관광부문방문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해당 부문 일군들이 방문단을 맞이하였다.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청년회관소조원들의 미술전시회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청년회관소조원들의 미술전시회가 8일부터 13일까지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전국의 과외교양기지들에서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소조원들이 출품한 조선화, 크레용화, 유화, 서예, 조각, 수예를 비롯한 15종에 40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수예 《김일성화》, 《백두산천지》, 《기념궁전의 포도》를 비롯한 작품들에는 태양의 모습으로 오늘도 주체조선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청소년학생들의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어려있다.

전선길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을 우러러따르는 청소년학생들의 불타는 마음이 반영된 조선화 《불멸의 꽃앞에서》, 수채화 《김정일화전시장에서》, 유화 《장군님 가시는 길》, 소묘 《축원의 마음》, 선전화 《아버지장군님 제일이야》 등의 작품들이 있다.

수채화 《옥류관의 철갑상어》, 따붙임공예 《5점꽃 활짝 펴요》, 펜화 《원산시의 불야성》, 도안 《무용복》, 서예 《비날론폭포》, 금니화 《10월의 축포》, 조각 《팽이치기 신나요》 등의 작품들은 강성대국에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과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의 동심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우리 당을 따라 선군의 길을 억세게 걸어갈 학생소년들의 의지를 반영한 조선화 《영웅되여 모교로 돌아오리》, 《더 좋은 래일》, 유화 《우리는 승리하리라》, 서예 《래일을 믿으라》, 《영웅과 나》를 비롯한 작품들도 전시되였다.

전시회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과 참가자들에 대한 표창과 시상이 있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림시대리대사 연회마련

태양절과 수리아독립절에 즈음하여 쑤헤일 하이다르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13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박의춘외무상, 조선수리아친선협회 위원장인 리룡남무역상,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문재철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문성모 외교단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에서는 쑤헤일 하이다르 림시대리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수리아당과 정부, 인민은 영생하시는 김일성각하를 세계해방운동의 걸출한 령도자로, 20세기의 위대한 수령으로 간주하고있다고 말하였다.

하페즈 알 아싸드각하와 위대한 김일성각하께서 마련하여주신 수리아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는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과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깊은 관심속에 강화발전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수리아와 조선사이의 쌍무관계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두 나라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지지성원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보다 큰 성과와 발전을 이룩하기를 축원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만민의 태양이시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완성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며 중동문제를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리아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우리 인민은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고 말하였다.

수리아독립 64돐에 즈음하여 친선적인 수리아인민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성, 중앙기관들에서 뽈스까공화국대사관을 찾아 조의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외무성, 륙해운성, 무역성, 교육성, 문화성,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외교단사업국 일군들이 뽈스까공화국 대통령 레흐 알렉싼데르 까친스끼각하와 그의 부인이 사망한것과 관련하여 13일 주조 뽈스까공화국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고인들의 사진앞에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조의록에 글을 남기였다.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느. 볼드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주체연구쎈터대표단, 쑤바쉬 까지 쉬레스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자력갱생연구회대표단, 사이또 마사히로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김일성주의연구회대표단이 13일 렬차와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쿠웨이트종합대학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아브둘리다 아씨리 쿠웨이트종합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단장으로 하는 쿠웨이트종합대학대표단이 1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기념 몽골대표단 도착

드. 미츠까 《험》유한책임회사 총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기념 몽골대표단이 13일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에꽈도르 에스메랄다스주 에스메랄다스시 시장대리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루이스 반게라 에스뚜삐냔 에꽈도르 에스메랄다스주 에스메랄다스시 시장대리가 1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 귀국

와르디야뜨모 문화관광성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지는 주체의 태양송가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전국전문가예술축전을 보고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훌륭한 공연무대

만수대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

만수대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이번 축전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고있다.

녀성기악중주 《2월은 봄입니다》, 바이올린제주 《더 높이 더 빨리》, 무용 《2월의 서리꽃》…

새롭고 참신하면서도 시대정신이 세차게 맥박치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훌륭히 구현된것으로 하여 이들이 무대에 올리는 매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고있다.

역시 관록있는 예술단체, 《만수대정신》의 창조자들답다고 누구나 경탄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만수대예술단의 공연무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혁명은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고있으며 래일도 계속됩니다.》

2년전 제1차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돌아온 그날 만수대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태양칭송의 전인민적인 예술축전사의 첫페지에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온 만수대예술단, 자랑스러운 그 이름을 떳떳이 새겨넣었다고 생각하니 기쁨도 컸지만 결의도 그에 못지 않게 컸다.

다음번 축전때에는 더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내놓을것을 결의다지는 창작가, 예술인들을 바라보며 예술단책임일군이 한 말은 길지 않았다.

《〈만수대정신〉의 창조자들답게 태양칭송의 전인민적인 예술축전에서 앞으로도 계속 앞장에서 나갑시다.》

《만수대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드높은 창작적앙양은 이런 자각에서 일어났다.

《만수대정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찌기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속에서 만수대예술단을 무어주시고 주체예술의 본보기집단으로 키워주시던 나날에 몸소 창조하여주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생명으로 하는 혁명적창작정신, 창조방식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하는 혁명적예술집단답게 누리에 수령영생송가, 위인칭송송가를 울려가는데서 우리가 계속 앞장에 서자.

이런 드높은 각오와 열정을 안고 이들은 여러 계기때마다 수시로 제기되는 중요한 공연들을 훌륭히 보장하면서도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사업을 품을 들여 진행해왔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간것이 축전준비사업을 단순히 공연을 위한 예술창조가 아니라 우리의 예술을 명실공히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예술로 되게 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사상을 철저히 관철하는 중요계기로 되게 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만수대예술단 창조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우리의 예술은 마땅히 시대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된 인민을 위한 예술, 인민이 좋아하며 사랑하는 예술로 되여야 한다고, 격식화된 틀에 매이지 말고 현시대 인민들의 감정정서에 맞게 모든것을 새롭게 창조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만수대예술단에서 녀성기악중주만 하지 말고 5중주 등 여러가지 연주방식으로 작품들을 형상해보라고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신심을 안고 창조사업에 달라붙었다. 사색에 사색을 합쳐나갔고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나갔다.

예술단의 관록있는 예술인들이 앞장에 섰다. 창작가들은 드높은 열정을 안고 창조사업에 온갖 심혈을 바쳐나갔다.

이번 축전무대에서 관중들의 절찬을 받는 녀성기악중주 《2월은 봄입니다》, 무용 《2월의 서리꽃》과 같은 작품들은 바로 이런 고심어린 창조의 날과 달들속에 완성된것이였다.

최근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아주시면서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좋은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며 만수대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만수대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그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생명으로 하는 《만수대정신》, 이 훌륭한 정신을 기치로 들고나가는 한 만수대예술단은 앞으로도 조국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혁명적예술집단으로서의 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할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4월의 공연무대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진형

종목마다에 넘치는 불타는 맹세

함경남도예술단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명곡은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현실속에서만 울려나올수 있다.》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이다.

—로동계급의 숨결이 잘 안겨오는 기백있는 공연을 보았다.

함경남도예술단의 공연을 본 관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터치는 찬탄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전에 들려왔다.

지난해초,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는 남다른 영광을 지닌 실력있고 전통이 있는 함경남도예술단 예술인들이 이번 축전무대에도 훌륭한 작품들을 내놓아 관람자들을 기쁘게 하고있는것이였다.

마침 우리는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 도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날수 있었다.

그런데 첫눈에도 이채롭게 안겨오는것이 있었다.

제대병사의 옷차림을 한 배우들이며 전차공처녀들을 련상케 하는 의상을 입은 배우들도 있었다.

《이번 축전무대에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전국의 맨 앞장에서 내달릴 우리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맹세를 그대로 안고오고싶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예술단의 책임일군이 뜨겁게 하는 말이였다.

그는 예술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함경남도예술단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회주의문화예술의 참된 창조자, 견결한 옹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있다고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예술창조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왔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축전에 내놓게 될 하나하나의 작품마다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여느때없이 끓어번지고있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정신과 열정을 반영하기 위해 창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에서 창작전투를 벌리던 나날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 대홍청년영웅광산을 비롯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새겨진 단위들에 창작전투현장을 아예 옮기던 이야기, 낮이면 낮대로 로동자들과 어울려 일을 하고 밤이면 모여앉아 현실에서 탐구한 새로운 세부들과 종자들을 놓고 날이 밝는줄도 모르고 창작적흥분을 터놓던 이야기…

바로 이런 나날들에 룡양광산 6월5일갱 7호굴착기영웅소대 선동원 송순애동무를 원형으로 한 단막극 《언약》, 무용 《금골에 온 제대병사들》과 같은 도안의 로동계급의 투쟁과 생활의 생동한 화폭들을 담은 특색있는 작품들이 창작완성될수 있었다는 그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가슴뜨거웠다.

녀성6중창과 합창 《인민은 노래하네 4월의 명절》, 녀성독창과 방창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혼성5중창 《돌파하라 최첨단을》, 남성독창과 방창 《그이의 리상》, 녀성독창 《북두칠성은 그리움의 별》, 《해당화》…

무대에 오른 한편한편의 작품들은 다 이렇게 벅찬 시대의 숨결을 반영하고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영예로운 참전자, 승리자가 되려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결사의 의지와 맹세를 그대로 담은것으로 하여 그처럼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례성강의 불빛》

황해북도예술단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창조력의 위력이 과시되고있는 례성강발전소건설장에 태양절을 맞으며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경애하는 장군님따라 강성대국의 대문에 긍지높이 들어설 건설자들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노래가 되고 춤이 되여 봄축전무대에 펼쳐지고있다.

이번 축전에 참가한 황해북도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종목들이 관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녀성독창과 합창 《수령님 그리는 마음》, 무용 《례성강의 불빛》…

특히 무용 《례성강의 불빛》을 보느라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날에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가는 황해북도인민들의 열화같은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실감있게 느끼게 된다.

위대한 투쟁과 생활을 떠나 훌륭한 예술작품을 생각할수 없다.

황해북도예술단의 무용 《례성강의 불빛》도 혁명적대고조의 기상으로 들끓는 도내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이 낳은 좋은 작품이다. 현실체험으로 례성강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갔을 때 예술단의 창작가들은 커다란 창작적흥분을 금할수 없었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인 례성강발전소건설에 그처럼 마음쓰시며, 례성강발전소는 황해북도에 있어서 생명선이나 같다고 하시며 건설장에 위대한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워가는 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락관에 넘친 생활…

심장의 격동이 없이는 대할수 없는 벅찬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작품의 종자를 찾아내고 하나하나의 춤가락을 다듬어나가는 과정에 창작가들은 시대정신이 나래치고 기름냄새, 흙냄새가 나는 참다운 예술은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속에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가슴에 초석같이 새기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해가는 황해북도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무용 《례성강의 불빛》이 창작완성되게 되였으며 오늘은 이렇게 4월의 봄명절을 성대히 기념하는 축전무대를 뜻깊게 장식하게 되였다.

무용 《례성강의 불빛》은 하나의 예술작품이기 전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인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맹세의 메아리인것으로 하여 관중들로 하여금 오늘의 총진군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 각오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한없는 그리움 노래와 률동에 담아

국립민족예술단에서

경사로운 태양절을 뜻깊게 장식하고있는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 국립민족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도 참가하여 날로 꽃피는 민족예술의 참모습을 훌륭히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자존심과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떨치고있다.》

국립민족예술단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은 녀성독창과 방창 《김일성대원수님 고맙습니다》, 녀성4중창 《평북녕변가》, 합창 《오직 한마음》을 비롯하여 여러 음악작품들을 민족적정서가 풍만하게 새로 형상하고 여러 가무작품들을 창작하여 축전에 내놓았다.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시며 끝없는 행복과 영원히 밝은 미래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사회주의강성대국승리의 그날을 앞당겨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신심과 락관을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훌륭히 펼쳐보인 작품들마다에는 태양의 빛발아래 민족예술의 위력을 떨쳐가는 관록있는 예술집단성원들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도 뜨겁게 슴배여있다.

얼마전 우리가 예술단을 찾았을때였다. 어느 한 무용련습장에서 배우들과 함께 가무작품의 예술적형상을 더욱 세련시켜가던 리순옥동무는 쉴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새로 창작한 여러 가무작품들에도 민족예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국립민족예술단 사업을 지도해주시면서 가무를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과 방도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돌이켜보면 《단심줄》, 《13도자랑》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혁명가무작품들과 더불어 마련된 가무예술의 혁명적인 전통을 선군시대에 더욱 빛을 뿌리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이번 축전에 내놓을 새로운 가무작품창작사업으로 예술단창작가, 예술인들이 불같이 이어온 낮과 밤은 그 얼마였던가.

그 나날에 출연자들이 세련된 민족춤가락을 률동적으로 펼치며 높은 성악적기량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밝히는것으로 하여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는 여러 가무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될수 있었다.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돌파하라 최첨단을》, 《모란봉》,

작품들에는 어버이수령님 그대로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끝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인민의 한마음, 최첨단돌파의 기상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낄 천만군민의 불타는 열정, 절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진정 어버이사랑속에 날로 꽃피는 우리 민족예술의 자랑찬 면모로 하여 더욱 뜻깊은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무대이다.

뜻깊은 4월의 봄날 환희로운 축전무대에서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노래와 률동에 담아가는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의 가슴마다에 용암마냥 끓어오른다.

예술단에 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높은 창작적열의를 발양하여 선군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회주의문화예술의 참된 창조자, 열렬한 옹호자가 될 불타는 결의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철룡

불멸의 꽃에 어린 뜨거운 마음

강원도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우리는 얼마전 뜻깊은 4월의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러드는 강원도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찾았다.

봄날씨는 아직 차지만 따뜻한 온실안에는 활짝 핀 김일성화의 꽃바다가 펼쳐져있었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펼쳐놓은 그 꽃바다를 바라보느라니 눈굽이 찌릿이 젖어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투철한 수령관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당과 수령을 대를 이어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 이 훌륭한 인민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맑은 이슬을 머금고 꽃잎을 활짝 펼친 불멸의 꽃 김일성화,

보면 볼수록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곳 일군인 류영호동무가 들려준 이야기는 감동적이였다.

지난 겨울 어느날이였다. 밤늦게 집으로 향하던 그는 여느때없는 추위가 느껴져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한송이의 꽃이라도 상할세라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놓고 떠난 걸음이였지만 혹시 강한 바람에 의해 온실의 온도가 떨어질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의 발걸음은 저도모르게 온실로 향해졌다. 그가 온실에 다달았을 때였다. 몰아치는 바람도 아랑곳없이 보온대책을 세우는 종업원들의 모습이 눈에 안겨왔다. 퇴근길에 올랐던 지배인 류의지동무와 당세포비서 손철만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가 마치 약속이나 한듯 달려나와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맵짠 바람은 온밤 기승을 부렸지만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키워내려는 종업원들의 마음은 차디찬 대기를 녹이며 더더욱 달아오르고있었다. 그날 이들은 꽃의 생육조건에 맞게 온실의 보온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비록 길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남긴 여운은 컸다.

꽃은 철따라 피고지기마련이다.

하지만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속에 언제나 계절이 따로없이 이렇듯 끝없이 만발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벌려

과일군 연광농장에서

과일군 연광농장에서 초급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키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농장에서는 군중문화예술활동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래보급책임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단위별로 준비한 예술소품공연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농업근로자들의 경쟁심과 열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예술소품공연준비로 작업반들에서 노래소리, 악기소리가 힘차게 울려 온 농장이 흥성거리고있다.

이 사업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나래치라 선군조선 천리마여》, 《폭풍쳐달리자 강성대국 향하여》,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래일을 믿으라》를 비롯한 시대적감정을 반영한 혁명적인 노래들이 널리 보급되고 일터마다에서 신심과 랑만에 넘친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벌어지는 군중문화예술활동으로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더욱 높아져 이곳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더 많은 쌀을 증산하는것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갈 불타는 마음을 안고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리철만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도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무척 사랑하고 즐겨부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수령님의 은덕속에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행복과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참으로 좋은 노래입니다.》

부드럽고 유순한 그 선률을 들으면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살아온 나날들이 삼삼히 떠오르고 구절구절 가사를 새기느라면 가슴가득히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고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이라고 목청껏 부르던 어린시절로 마음달려 저도모르게 행복에 겨워진다.

즐거운 명상을 흔들며 문득 한 과학자의 목소리가 나의 귀전에 울린다.

《정말 많이도 불렀습니다. 해방동이로 태여나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 되였을 때에도 불렀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에도 행복속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왜서인지 지금은 행복의 노래로만 쉬이 부를수가 없습니다.》

수학연구소의 관록있는 교수, 여주는 예술영화와 유치원어린이들이 출연한 집단체조의 제목으로 되고 조국이 엄혹한 시련을 겪던 1990년대말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창립 35돐을 맞으며 창작된 서사시의 제목으로도 되였다.

그만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말은 행복한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떼래야 떼수 없는 행복의 명구, 기쁨의 시어가 되여왔다.

하다면 그 과학자는 왜 이 행복의 노래를 쉽게 부르지 못하는것인가.

생각이 깊어진다.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무대에서 이 노래가 울려퍼질때면 그리도 기뻐하시던 어버이수령님,

구수한 낟알향기풍기는 풍년벌에서도, 대견하게 성장한 혁명가유자녀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이 노래를 흥겹게 부르시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려 준공식장에 나오신 그날에는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고 외우시며 온 세상이 환하도록 웃으시던 우리 수령님의 못 잊을 그 모습,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 노래를 영원히 울려주시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앞장에서 헤쳐가신 멀고 험한 선군장정, 그길에서 달게 여기신 그이의 천만고생과 바꾼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던가!

오늘은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강성대국의 그날을 하루빨리 안아오시려 우리 장군님 초강도강행군길에 계시며 소중하게 마련해가시는 우리의 행복이다!

하거늘 그이의 그 크나큰 로고를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덜어드리지 못하고서, 적은 힘이나마 강성대국건설에 바치지 못하고서 어떻게 철없던 그 시절처럼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고 행복의 노래를 쉬이 부를수 있으랴.

이 무거운 책임감, 이것이 과학자의 마음이다. 아니, 2012년을 눈앞에 둔 우리 인민모두의 심정이다.

노래속에 어제날의 행복을 추억하고 오늘의 행복을 누리기만 하는 향유자가 아니라 노래와 함께 더욱더 크나큰 행복의 창조자로 살려는 강성대국건설세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희천속도》, 《CNC》, 《비날론정신》, 성강과 김철의 주체철, 원산과 함흥의 불야성, 례성강의 공격정신, 남흥과 흥남의 가스화투쟁…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혁신의 열풍,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이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렇다. 세상에 부럼없는 우리의 노래,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념원인 강성대국위업의 필승을 위한 가장 숭고한 맹세의 노래, 경애하는 장군님께 바치는 가장 열렬한 충정의 노래가 아니랴.

그날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더 많은 땀을 흘리자. 더 피타게 사색하고 탐구하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의 슬기와 지혜로써 사랑하는 내 나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게 될 그날, 온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날 다같이 노래를 부르자.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을 삼가 우러러 어릴적의 밝은 마음으로, 우리의 집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강성대국 내 나라를 무대로 세계를 향해 목청껏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나는 생각에서 깨여난다. 마음이 조급해진다. 서둘러 일손을 잡는다.

본사기자 려명희

관광파탄책동은 북남대결정책의 산물

남조선보수당국의 반통일적책동에 의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때로부터 2년가까운 세월이 흐른 오늘 이 사업은 더는 구원할 길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 처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끊어진 관광길을 다시 잇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관광사업에 대해 고약하고 불손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남조선《통일부》의 현인택일당은 관광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를 외면하고 그 무슨 《3대조건》이니 뭐니 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관광재개의 기회를 망쳐놓았다. 그러고도 지금 그들은 관광재개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이 마치도 우리에게 있는듯이 허튼 여론을 내돌리면서 민심을 오도해보려고 잔꾀를 부리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보수당국이 관광문제를 저들의 반통일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관광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통일을 반대하는 대결광신자들의 정치적롱락물이 될수 없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나라의 통일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때문에 우리는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가능한껏 동포애적인 견지에서 다 풀어주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끈질긴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이 끊임없이 발전하여올수 있은것도 전적으로 북남관계의 특수한 환경속에서도 첨예한 군사구역까지 관광지로 내여주고 관광객들의 온갖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준 우리의 아량과 성의, 대범한 노력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는 금강산관광사업이 나라의 통일위업과 민족공동의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된다면 그이상 더 바랄것이 없었다.

그러나 활기를 띠였던 관광사업이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에 의하여 중도반단되고 다시 재개될 희망마저 사라진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를 그토록 거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관광재개만을 가로막자는것이 아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관광객사건》과 《3대조건》을 구실로 격페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 6. 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줄기차게 이어져온 북남협력사업들을 모조리 말살하며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과의 대결을 더한층 강화하자는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관광문제를 북남대결을 위한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의 관광재개거부책동은 반통일대결정책의 산물이다.

반역도당은 집권초기에 벌써 반통일대결론인 그 무슨 《비핵, 개방, 3 000》을 이른바 《대북정책》으로 내걸고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리행을 가로막았을뿐아니라 그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의 모든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말아먹었다.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관광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린것도 사실상 그러한 반통일대결책동의 한 고리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패당이 《관광객사건》에 대한 그 무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등을 관광재개의 《3대조건》으로 내건것은 진정으로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신변안전문제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처음부터 남측의 관광사업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담보를 준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이 그것을 구실로 관광재개에 나서지 못하도록 당사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말할수 없는 피해, 고통을 강요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지난해 8월 관광객신변안전과 재발방지문제를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주었다.

하지만 현인택역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통일부》패거리들은 우리의 진심어린 성의와 아량을 그 무슨 《민간업자와의 합의》로 헐뜯었으며 심지어 《북에 관광가면 총에 맞아죽는다.》는 등 험악한 소문까지 내돌리면서 관광길을 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이것은 보수패당이 들고나온 《3대조건》이라는것이 어떻게 하나 관광사업에 흠집을 내고 남조선사회에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야기시키며 그에 토대하여 북남협력사업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계획적인 모략의 산물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보수패당의 관광재개거부책동은 외세와의 공모결탁으로 반공화국압살소동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적인 대결망동이다.

보수패당은 《비핵, 개방, 3 000》에 따라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과 《제재》책동에 적극 편승하면서 우리를 모해압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여왔다. 그들이 핵문제를 구실로 한 반공화국《제재》소동의 주되는 장애의 하나로 본것이 금강산관광사업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보수패당은 《관광객사건》이 발생하자 패재를 올리며 그 진상을 똑똑히 알아보기도 전에 관광사업을 일방적으로 중지해버린것이다.

이미전부터 관광문제를 핵문제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그 무슨 《돈줄》이니, 《퍼주기》니 하고 헐뜯어온 남조선집권세력은 터무니없이 《투명성》이 보장되기 전에는 《관광재개가 절대로 안된다.》고 고아대면서 관광재개에 무작정 제동을 걸고있다. 심지어 《3대조건》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현금지불방식의 관광은 하지 않을것》이라고 떠들며 관광재개에 이중삼중의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얼마전 남측이 관광재개와 관련한 실무접촉에서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하고 지어 도발까지 걸다 못해 다음번 접촉날자마저 정하지 않고 달아뺀것은 그들이 금강산관광재개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외세의 반공화국《제재》소동에 적극 추종하여 북남협력사업을 말아먹고 동족을 해칠 흉심만 있을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에 관광재개의사가 없다는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우리는 이미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한 단호한 립장을 밝혔으며 그에 따라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부동산들에 대한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것은 북남관계의 운명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는 아랑곳없이 반민족적인 대결의 길로 미친듯이 질주하는 반역패당의 망동을 방관시할수 없게 된 현실로부터 출발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다.

지금 현인택일당이 우리의 조치에 대해 갖은 악담으로 시비질하고있지만 그런 서푼짜리 망동으로 관광재개를 파탄시킨 책임을 덮어버리기에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크다. 그것은 관광문제를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써먹고있는 반통일역적들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여줄뿐이다.

민족의 요구와 나라의 통일은 안중에도 없이 반통일대결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며 죄악의 산을 높이 쌓고있는 반역패당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박 철 준

핵전쟁을 노린 범죄적인 청탁놀음

외세의 힘을 빌어 북침핵전쟁을 도발하려는 피뢰패당의 범죄적책동이 날로 무분별해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자는 미국대통령과의 전화대화에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확장억제력제공》을 구걸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어 《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도 미국무장관과 《핵확장억제력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그 무슨 《북핵대응방안》이라는것을 모의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남조선《국방부》와 《외교통상부》의 패거리들은 미국방성, 미국무성의 실무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확장억제력제공》과 《안보공약》은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받았다고 한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확장억제력제공》이 조선반도《유사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도 포함한 미제침략군의 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핵공격을 가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피뢰들이 이번에 미국상전에게 《핵확장억제력제공》을 다시 구걸한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예고해주는것으로서 극히 엄중한 사태이다. 그들의 《핵확장억제력제공》구걸소동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핵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쳐놓으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로서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예측할수 없는 극단에로 몰아가는 용납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문제는 피뢰들의 이런 청탁놀음이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기 직전에 벌어진 사실이다.

미국은 지난 6일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공화국에 그 무슨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위반국》의 감투를 씌워 우리를 핵무기공격대상에 포함시켰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도 불사하려는 미국의 모험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걸고들며 상전의 위험천만한 북침핵선제공격정책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미쳐날뛴자들이 바로 피뢰패당이다. 그들은 미행정부가 이전의 핵정책을 《수정》하는 새로운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하려 하자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핵확장억제력제공》과 《안보공약》을 재확인받기 위해 정신없이 돌아쳤다.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공격대상으로 조아박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가 발표되였을 때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지지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는 추태도 부리였다. 이것은 남조선집권세력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을 정책화, 명문화하기 위해 음모와 비럭질에 얼마나 날뛰였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가 파국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갈수록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고있는 때에 반역도당이 외세에게 동족에 대한 핵공격까지 서슴없이 주문해나섰으니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피뢰패당이 있지도 않는 《핵위협》을 구실로 《핵확장억제력제공》이니, 《안보공약》이니 하며 저들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억제》와 《안보》의 간판을 붙이는것은 파렴치스럽기 그지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오는 우리의 《핵위협》이란 완전한 날조이다. 사실상 핵위협을 당하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이다. 얼마전에도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가상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극도로 증대시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엄중해지는 적들의 핵전쟁소동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그 무슨 《위협》이라고 걸고드는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의 도발로서 북침핵선제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뻔뻔스러운 망동이다. 현실은 미국에 대한 남조선보수패당의 《핵확장억제력제공》구걸소동이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청탁소동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핵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피뢰패당은 저들의 친미사대, 동족대결소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처하고 조선반도에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도의 위험을 조성한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반대하는 저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이 빚어낼 파국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하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송 영 석

문제해결의 열쇠는 신뢰구축에 있다

최근 체스꼬의 쁘라하에서 로미사이의 새로운 전략공격무기축감 및 제한조치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였다.

로씨야대통령 메드베제브와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서명한 조약은 로씨야와 미국이 각기 실전배비된 핵무기를 약 3분의 1정도 축감할것을 규제하고있다. 조약이 제대로 리행되면 7년후 로미는 전략핵탄두를 1 550개씩 가지게 된다고 한다.

랭전이 종식된지도 적지 않은 시일이 지난 오늘 이미 세계적인 핵전쟁위험이 크게 줄어든 새로운 환경에 비추어볼 때 핵군축의 실제적인 의의는 별로 없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핵무기보유국들가운데서 조약쌍방을 제외한 다른 핵보유국들이 보유하고있는 핵탄두수가 많아서 수백개정도인 실정에서 로미는 이 조약이 리행된다 해도 여전히 압도적인 핵우위를 유지할수 있게 되여있다.

랭전시기의 군축조약들과는 달리 이번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이나 실제로 그것이 체결되였다는 소식에 세계가 각이한 반응을 보이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집권후 국제사회앞에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한 미당국자는 그 실현을 위한 첫 결과물로서 로미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체결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다음달 워싱톤에서 진행되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에서 핵군축을 요구하는 비핵국가들의 압력을 무마시키고 국제적인기를 올려볼 속심밑에 이 대회전에 조약체결을 성사시키느라고 분주함을 피웠다.

배경과 환경, 추구하는 목적이 어떠하든지간에 이번 조약은 비록 만족할만 한것은 못되지만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고 신뢰가 있는 조건에서는 일정한 핵무기축감이 가능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로미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체결을 목격하면서 세계는 국제적으로 핵전쟁위험이 제일 큰 조선반도비핵화문제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있다.

지금도 대조선제재라는 불신의 장벽에 막혀 재개되지 못하고있는 6자회담의 현실태는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가. 그것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이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이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기본당사자들인 조미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다. 다시말하여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이 급선무이며 문제해결의 열쇠로 된다.

우리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한 취지도 거기에 있다.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수립문제를 론의하기에 앞서 비핵화를 진척시키는 방식은 실패로 끝났다.

조미사이의 불신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비핵화를 다그쳐나가자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이다. 력사에 서로 신뢰가 없이 총을 먼저 내놓은 일은 없다.

당사자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교전상태에서는 언제 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실수 없으며 비핵화는커녕 회담자체가 순조롭게 추진될수 없다.

원래 평화협정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한 필요성과 절박성으로부터 이미전에 체결되였어야 했다. 조선반도에 일찌기 공고한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였더라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비핵화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을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하게 될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열리기만 하여도 비핵화과정이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효률적인 추동력이 마련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진실로 바란다면 이제라도 실현불가능한 《선핵포기》를 고집하지 말고 우리와의 평화협정체결에 속히 응해나와야 할것이다.

리 현 도

1 면 에 서 계 속

글은 계속하여 김일성주석각하의 숭고한 위업은 오늘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며 사회주의조선은 선군의 조국으로, 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하면서 특히 김정일각하의 정력적인 혁명령도에 의하여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전변들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자주위업, 선군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이번 전시회가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세상사람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며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해 비상한 정력과 불굴의 투지를 안고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옳은 리해와 굳은 련대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믿어마지 않는다.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부분페지들은 도서, 사진, 영화, 음악항목들로 구성되였으며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고매한 풍모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게재되였으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주체사상에 대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올랐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를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와 음악들이 편집되였다.

인터네트도서, 사진전시회는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흘러넘치는 속에 진행되였으며 세계각국의 437만여명이 전시회특별페지를 열람하였다.

한편 전시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가 편지를 올리였다.

【조선중앙통신】

뽈스까대통령의 비행기 추락, 인명피해 발생

뽈스까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10일 와르샤와로부터 로씨야의 스몰렌스크로 비행하던중 추락하였다.

사고는 비행기가 스몰렌스크시교외에 착륙하던중 발생하였다. 사고로 대통령 레흐 알렉싼데르 까친스끼와 그의 부인, 수행성원들이 모두 사망하였다 한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반대

브라질외무상 쎌쑤 루이스 누네스 아모림이 6일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이란핵문제는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부정적인 후과만을 초래할것이라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브라질은 이란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꼬스따 리까가 8일 두 나라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보다 앞서 6일 꾸바와 이란은 경제, 무역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내정간섭책동을 배격

에짚트외무성 대변인이 8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책동을 규탄배격하였다.

최근 미국무성 대변인이 에짚트에서 있게 될 대통령선거문제를 놓고 그 무슨 우려를 표시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을 자기 나라의 국내정치문제에까지 끼여들려는 간섭행위로 락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군기지설치계획을 반대하여 일본에서 항의집회

일본의 과거죄악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지난날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감행한 범죄는 그 야만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동서고금에 류례없는 극악무도한 죄악으로 력사에 기록되여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에 일어난 임진조국전쟁(1592—1598년)때를 상기해보자.

1592년 4월 우리 나라를 침략한 일본사무라이들은 1598년 11월 쫓겨갈 때까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일본 교또시에 하나의 옛 무덤이 있다.

이 무덤을 《미미즈까》라고 부른다. 우리 말로는 《귀무덤》이라는 뜻이다. 이름그대로 이 무덤에는 사람들의 귀가 묻혀있다. 임진왜란때 일본사무라이들이 우리 나라에서 베여간 수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의 귀가 여기에 묻혀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 침입한 가또, 시마즈, 나베시마부대놈들은 강원도, 함경도방향으로 진출하면서 조선사람을 죽이고 《전공》의 증거물로 머리를 잘라들이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무겁다고 하여 귀나 코만을 베여내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하3도》(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저들에게 떼여달라는 강도적요구를 내대는것으로 《강화》교섭을 결렬시킨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이 세 도에로 침략군을 내몰면서 조선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여 《그 귀를 베여 소금에 절궈서 제도(왕이 있는 수도를 말함)로 보낼것이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자는 매 병졸에게 한되박씩의 귀를 잘라바칠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무고한 조선사람의 귀자르기가 더욱 악랄하게 벌어졌다.

가또 기요마사는 1만여명 되는 병졸들에게 1인당 세사람의 귀를 잘라바칠데 대한 《기준량》까지 정하여 인간살륙전에로 내몰았다. 당시 이자의 부대놈들이 잘라바친 조선사람의 귀만 하여도 3만개이상에 달하였다.

임진조국전쟁의 첫해인 1592년에 강원도 춘천에서 베여낸 조선군사 70여명의 귀를 도요도미 히데요시에게 보내여 《감사장》까지 받은 시마즈가문의 살인악당들은 1597년 7월 사천을 강점하고 3만 8 717명의 조선사람의 귀를 베여 10개의 큰 나무통에 넣어 일본에 보냈다.

일본의 한 기록에는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1593년 10월에 함경도의 23개 고을에서 1 300여명의 귀를 잘라 일본에 보낸데 이어 그의 셋째아들 나베시마 가쯔시게가 1597년 2월에 전라도 가야산전투뒤에 3 369명의 코를 베여 일본에 보냈다고 씌여있다. 1597년 8월 중순 남원성을 타고앉은 일본침략자들이 3 726명의 군사들과 인민들을 죽이고는 그중에서 장수들은 목을 자르고 병사들과 인민들은 귀와 코를 잘라내여 소금을 섞은 재를 쳐서 단지에 넣어 도요도미 히데요시에게 보낸것을 비롯하여 이런 잔악한 행위는 임진왜란 전기간 우리 나라 도처에서 감행되였다.

당시의 한 《진중일지》에 의하면 놈들은 《전공》을 평가받기 위하여 서로 더 많은 귀와 코를 베려고 경쟁적으로 미쳐날뛰였다. 전사한 조선군사들에게서 베여내다 못해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까지 달려들어 마구 잘라냈으며 마을의 집집을 뒤져서 아낙네들은 물론 어머니의 등에서 발버둥치는 젖먹이의 귀까지도 주저없이 칼로 잘라냈다.

일본의 한 책에는 이렇게 잘라낸 조선사람들의 귀가 적게 잡아도 10여만개에 달한다고 씌여있다.

《미미즈까》는 인류사를 더럽힌 하나의 치욕스러운 표적물인 동시에 일본사무라이들의 잔인성과 포악성을 고발하는 력사적증거물이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기질은 조선인민에 대한 대량적인 학살만행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1592년 4월 13일 남해의 판문인 부산을 공격하는것으로써 임진왜란을 개시한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에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첫순간부터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마구 죽이였다.

당시 약 1 800명의 우리 나라 군사들이 지키고있던 부산성에 1만 8 700명의 왜놈병력이 달려들었다. 력량상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조선군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히 항전하였으며 마지막 한사람까지 결사의 혈투를 벌리였다.

이때 무너진 성벽사이로 물밀듯이 달려들어온 놈들은 성안의 인민들에 대한 일대 살륙전을 벌리였다. 일본살인귀들은 성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늙은이건 어린이건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살륙하였다. 한 기록에는 그때 8 500여명의 목을 잘랐다고 씌여있다.

이것이 임진왜란때 일본침략군이 감행한 첫 조선인학살만행이였다. 이렇듯 임진왜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인민에 대한 피비린 살륙전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의 살인만행은 리조봉건국가의 수도였던 서울에서 가장 야만적으로 감행되였다.

1592년 5월초 서울에 기여든 일본침략자들은 근 1년동안의 강점기간에 성안에 남아있던 수만명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1593년 4월 일본침략자들은 조선군대의 드센 공격과 군량난으로 하여 더이상 견딜수 없어 퇴각하면서 성안의 인민들을 거의다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이 쫓겨간 다음날에 서울에 돌아온 도체찰사 류성룡은 성안에서 목격한 끔찍한 광경을 《징비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성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백에 한둘도 안되였는데… 사람과 말이 여기저기 마구 죽어넘어져있고 악취가 성안에 차넘쳐서 사람들은 코를 싸쥐고 다녔다. 성안팎에는 백골이 무더기로 쌓여있었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1593년 6월말 진주성에서는 일본침략자들에 의해 전쟁기간중 가장 큰 규모의 조선인학살만행이 저질러졌다.

침략의 피수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성을 기어코 점령하며 주민을 한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라는 살인명령과 함께 12만 3 000명의 병력을 살륙에로 내몰았다. 성안에 쓸어든 놈들은 무려 6만명이나 되는 인민들을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죽이였다. 그리고 간신히 죽음을 면한 사람들을 붙잡아 창고에 몰아넣고 불태워죽이였다. 그리하여 진주성안에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단 한명도 남지 않았다.

일본침략자들의 학살만행은 《강화담판》을 결렬시키고 재침을 개시한 1597년이후 더욱 극악무도하게 감행되였다.

당시 일본수군 우두머리의 하나였던 시마즈가문에 전해지고있는 《정한록》이라는 책에는 《전하의 노여움이 멎을길없어 (1597년에) 다시 대군을 일으켜 조선(사람)을 몰살시킴으로써…》라는 내용과 함께 재침의 주요목적이 조선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것이였다고 씌여져있다.

일본야수들은 우리 인민들을 마구 살륙하였을뿐아니라 심지어 조선사람을 죽여 살점까지 뜯어먹는 치떨리는 식인종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력사자료에 의하면 일본침략군의 한 부대는 1597년 7월부터 9월까지 경상남도 울산에 진을 치고 들어앉아 다시금 전조선에로 전쟁을 확대할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당시 그 부대에는 놈들에게 잡혀가서 강제로동을 당하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있었다. 놈들은 조선군대의 끊임없는 공격과 봉쇄로 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그들을 먹이지도 않고 채찍을 휘두르며 축성공사와 짐운반과 같은 고역에로 내몰았다.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일하다 쓰러져죽거나 매맞아죽을 처지에 놓여있던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군영을 빠져달아나군 하였다. 그러나 굶주림과 고역에 시달린 몸이여서 도저히 멀리 달아날수 없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들인 놈들은 그들을 세워놓고 총과 활로 쏘아죽였으며 쓰러진 다음에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서로 다투어가며 살점을 뜯어먹었다. 그중에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의 살을 군도나 손칼로 뜯어내여 더운 피가 뚝뚝 흐르는것을 그대로 먹는 놈들도 있었다고 한다.

우의 자료들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저지른 일본침략자들의 조선인학살만행사실가운데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로 임진조국전쟁기간 인간백정의 무리인 일본침략자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당하였는지 다는 알수 없다.

수백년전 조선을 침략하고 사람잡이를 일삼은 일본사무라이후예들인 일제날강도무리들은 20세기초에 무력의 뒤받침밑에 또다시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40여년간 악랄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씌웠다.

일제살인마들에 의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 과거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은 상상을 초월하는 특대형범죄이다.

하기에 지금도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며 불타는 증오심과 복수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수백년에 걸치는 일본의 과거죄악을 두고두고 잊지 않을것이며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조 성 철

기업체 파산

일본의 《도꾜 쇼꾜》연구소는 8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3월말에 끝난 2009회계년도에 전국적으로 1만 4 732개의 기업체가 파산당하였다고 밝혔다. 파산된 기업체들이 진 빚은 총 7조 1 400억￥에 달하였다 한다.

살림집가격 인상

에스빠냐에서 살림집가격이 계속 올라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1. 4분기에 까딸로니아와 아스뚜리아스에서만도 살림집평균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 3%, 2. 6% 인상되였다 한다.

자연피해

—프랑스의 이재르지역에서 5일 눈사태가 일어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날 샤모니에서도 눈사태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다.

—꼴롬비아에서 올해에 들어와 계속된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

산불로 5일현재까지 6만 9 279ha의 산림이 파괴되고 여러 주민지역들에서 많은 물질적손실이 초래되였다.

나라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한다.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에 얼마전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 폭풍으로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약 6만채의 살림집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01062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 집 위 원 회